

# 마테데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만 마음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됨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정제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신 신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찾아오신 예수

신윤식

하늘 영광의 자리를 떠나  
저주의 땅에 사랑으로 오셔서  
광야를 헤매는 애타는 눈을 가진 당신  
욕망과 경쟁으로 가득한 이곳에  
생명의 발걸음으로 끝없는 가시밭길을  
홀로 가는 외로운 이여

산이 있어도 외롭고  
강이 있어도 외롭고  
사람이 있음에도 외로운 이여  
구원에 대한 사명이 있기에  
하늘 향해 기도하는 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련한 인간에게 얹힌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여

그 찢겨진 고난의 가닥가닥  
자비로운 걸음걸이가 되시니  
저주받은 이 땅이  
비로소 어둠을 벗어나 가는 법을 배웁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2.12.23

발행호수 제20권 51호

**눅** 8장에는 예수님께서 군대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일과,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 받은 일, 그리고 회당장 아이로의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군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아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일은 모든 군중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8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고 경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경고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의 권능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권능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신비한 현상을 목격 한다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고, 이것은 군중들이 목격한 기적의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기적의 사건만 일어난다면 세상도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고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인의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믿어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28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지금 하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귀신도 믿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세상이 믿어주기를 위해서 기적의 사건을 행하셨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오전설교

눅 9:1-6

## 제자와 권능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권능이 나타난다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목격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 이익이며 배부름이었습니다. 즉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로 몰렸던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권능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신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제자들에게 모든 권위를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초점을 전도의 사명에 두기도 합니다. 2절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라는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 즉 전도를 위해 제자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전도의 현장에는 능력과 권능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즉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증거로 병 고침과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4장에서 아시아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권능입니다. 하지만 이 권능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

는 능력 자체를 의미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병들고 귀신 들렸다는 것은 육신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인간 자체가 병들었고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갑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었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의 인간을 생각해보십시오. 욕망도 미움도 경쟁도 시기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정상적인 모습임을 생각해 본다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인간은 병들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한 몸의 관계는 깨어지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희생하며,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악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병든 것이고 귀신 들린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을 힘으로 간주하며 돈이 있는 자는 그것을 권세로 이용합니다. 이것이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다면 이 같은 악한 영, 즉 더러운 귀신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전파해야 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서 이 같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식교회는 어떨까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를 고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에 붙들려 있고 어떤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도외시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로 접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며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도를 위한 방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

는지에 대해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여행하는 자로 말씀합니다. 즉 어느 한곳에 정착하여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는 것이 보냄 받은 제자들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자리로 삼고 그 자리를 지키고 더욱 크고 넓게 확대하려고 하게 됩니다.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도 교회를 자신의 정착지로 삼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정착지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하고 확대하려는 욕망이 교회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있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이러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보시면 그들에게 주신 것과 주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주신 것은 능력과 권위입니다. 주시지 않은 것은 여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입니다. 여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낭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며 여분의 옷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고 있는 신발과 입고 있는 옷 한 벌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이용해서 배낭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옷도 구하라는 뜻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뭔가를 갖게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할 뿐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능력도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 권위는 더러운 귀신이 제어되고 병이 낫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행을 위해 배낭과 돈과 옷과 지팡이를 준비하는 것은 여행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행을 하는데 돈이 없고 여분의 옷이 없으면 심적으로 불안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모든 준비는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뜻과도 같습

니다. 여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그날그날 예수님이 준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며 삽니다. 노후의 인생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적게 준비되어 있거나 아예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동일하게 여행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은 돈도 옷도 아니라 능력과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권위는 돈이 되는 것도 옷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세상은 이 같은 사랑과 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을 벗어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러운 귀신과 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곧 이방인이라는 증거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전 4: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보고자 하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어둠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전제 구원에 이르게 한 능력입니다.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세상 것으로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준비된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신 권능이고, 신자가 나타내어야 할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자로 세상에 보냄 받았습니다.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자로 보냄 받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여 그것으로 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방인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수치도 부끄러움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여행하는 자로 살라고 준비해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제어하고 영혼의 병을 고치며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삽니다. 이것이 신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능력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자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라  
는 것을 믿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불안과 염려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불안과 염려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창조 신앙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은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범위에는 우리의 삶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히 주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창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신앙 안에서 생존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뜻이 있어 우리를 지으시고 뜻이 있어 우리를 부르셨다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뜻에 주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염려는 창조 신앙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않다는

주일오우설교

시 95:1-11

완악한 마음

(99강 12.2일 설교)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바라보기에 주변 환경들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염려와 불안은 풍요 속에서의 염려와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급박한 생존의 문제로 인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풍요 속에서 그 풍요로움을 잃을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고, 더 많은 풍요를 누리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1-6절까지 보면 시편 저자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지고 합니다. 이 저자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자신을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노래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시편 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은 그렇게 풍요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농사와 목축에 모든 것을 의존했습니다. 농사를 망치면 일 년을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은 환경과 무관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나타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지금보다 더 여유로워지고 넉넉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알지 못하는 무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풍요로운 삶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풍요롭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집니다. 그것이 빈곤이든 풍요든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신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빈곤에서의 감사든 풍요에서의 감사든 감사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해도 환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살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고 말합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돌보시는 양이라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신자 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며 삶의 조건이고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처한 현재의 환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으로,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멀리 계신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저자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마음의 완악이 어떤 것인지는 므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므리바 사건은 출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 환경이 이스라엘이 노예로 생활하던 애굽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물이었습니다.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생존 문제에 큰 위협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생존에 불안감을 느끼고 그 같은 환경으로 인도한 것에 대해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된 일은 모두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마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는 물이 있었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져 마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일인데 거기에는 아예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다투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위를 치자 물이 솟은 것입니다. 그곳이 맛사, 또는 므리바로 불리는 곳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출 17:7절을 보면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었**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시험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계신가 안계신가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세상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고, 인간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도하신 바를 따라 가는 것이 백성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근거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좋은 환경만 주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환경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환경은 생존을 편하게 해줍니다. 걱정과 염려보다는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려와 걱정과 불안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뜻을 가지고 나를 지으시고 부르셨으며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완악한 마음이고 불신앙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양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합니다.

**선** 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유대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 된 말씀이 평소 인간이 원하는 내용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실 된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 백성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했던 것은 사실 그들의 고향에 지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실 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신의 존재는 말씀을 주심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 백성들조차 말씀에서 벗어난 왜곡된 하나님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주신 믿음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해 왜곡되고 거부되며 배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왕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날이 이르면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 왜곡된 시각으로 이 약속을 들으면 어떤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유다는 자신들의 평안과 구원을 위한 왕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왜곡은 실제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이 고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도 인간의 고대하는 바를 따라 전혀 다르게 왜곡됩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자를 처벌하시고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상을 주심으로 세상을 아름답

수요일설교  
렘 23:1-8

정의와  
공의의 왕

(57장 11.28일 설교)

게 만드는 정의와 공의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은 세상 누구도 구원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유대 백성들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가 외쳤던 말은 유다의 멸망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생각할 때 자신들은 멸망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니가 응답해 주실 거야’ ‘주일을 열심히 지키니까 복을 주실 거야’ ‘열심히 봉사하니가 어려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 공의,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왜곡된 하나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건 상관없이 죄인이라는 선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심판이 마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주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러한 공의가 왜곡됨으로써 인간이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에 대가로 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며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왜곡된 하나님을 외쳤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들을 목장의 양 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평안을 외쳤습니다. 유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앞서 말한 대

로 자신의 의에 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는 인간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자 하는지에 있습니다. 인간이 거짓 목자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부정하는 십자가의 도는 외면하고 대신 인간을 긍정해주는 왜곡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긍정하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너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긍정하고자 하는 세계에는 필연적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행한 자와 적게 행한 자의 차별이 있습니다. 선함에도 차별이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인간의 행함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고대하는 왜곡된 정의며 공의인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죄인의 몸입니까? 이왕이면 세상에 둘도 없는 의인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의를 기준해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때의 일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악하다면 하늘의 의를 기준한 상벌의 방식은 인간에게는 절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인간에게서 의를 찾아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공평한 위치에서 새롭게 시작하심을 말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공평한 위치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정의며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세상의 그 무엇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 선함, 윤리, 도덕, 열심, 돈 그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는 거부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참된 말씀은 우리가 쫓겨나고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불의와 더러움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내가 저주의 자식이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 나오는 그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9(44)장  
 교 독 : 52(시119편)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519(251)장  
 성 경 : 눅 9:1-6  
 말 씀 : 제자와 권능(40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53(506)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4장  
 축 도 : 설 교 자

##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09(409)장  
 기 도 : 이애림 집사  
 찬 송 : 369(487)장  
 성 경 : 시 98:1-9  
 말 씀 : 자기를 위한 구원(102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0(41)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61강)

## ■ 교회소식 ■

1. 새해 달력이 몇 부 남아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부터는 개정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3.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장동현 집사

## 이단 ⑩

그러므로 가시적인 어떤 현상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십자가 비록 죄를 용서 받고 의로운 자로 여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영원한 부활 생명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 이런 우리에게 과연 구원의 표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 무엇일까? 단언하건데 그것은 병 고침이나 신기하게 여겨지는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표적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주술 신앙에 사로잡힐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표적 신앙에 머물게 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왜곡된 방식으로 자극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과 함께 하는 것 같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극적인 표적이 이단의 세계를 넘어서 타종교와 민간신앙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 과연 가시적인 현상 그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 들여도 되는 것인지를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도 기독교를 향해서 표적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인 스스로의 요구이기도 하다. 기독교인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표적이 없는 신앙을 힘이 없고 밋밋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참된 표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가시적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거두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역사에서 일어난 구원사역의 유일한 표적이며 영원한 생명의 신비사건이고 참된 현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산다는 부활을 의미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만 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활 사건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계시 사건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계시사건에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 역사로 인해 이루어짐을 믿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시적인 현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보이지 않고 소리 없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병 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등의 현상을 통해 확신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단이 내세우는 거짓 표적과 현상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앙 세계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종교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요구일 뿐임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믿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